

나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한다

혁신도시-원도심 '급행' 신설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연결 오지 택시 확대 등 내년 상반기 손실보조금 절감·시민편의 증대



지난 18일 나주시 시내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전반적인 노선 개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보고회'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시내버스 노선이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급행버스' 신설 등 전면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나주시는 내년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민 편의와 노선 효율성을 극대화한 민선 8기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첫 단추로 지난 18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보고회'를 갖고 나주시 시내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전반적인 노선 개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나주시 시내버스 운영 문제점으로 비효율적 노선 운행과 운송수입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운수회사 손실보조금 해마다 증액 등을 꼽았다.

또 시는 버스가 불편, 난폭운전 사례 증가, 승강장 미정차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승객 민원과 불편을 지적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운수회사에 지원되는 손실보조금 절감과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큰 틀에서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 ▲교통 수요를 반영한 노선 효율화 ▲마을택시 확대 ▲간선(광주) 노선 정비 ▲급행버스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버스 공차율이 높은 벽·오지 마을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는 교통 수요를 반영해 나주, 영산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횡수를 늘려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 노선에는 '순환형 소형마을버스'를 도입해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벽·오지 마을은 대체교통수단인 '마을 택시'를 확대·보급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혁신도시, 나주역, 원도심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에는 직선형 운행 시스템인 '급행버스'를 신설해, 주민 간 교류를 촉진시켜 상생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각각각종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나주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각각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대전환을 추진해가겠다"며 "노선 개편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 영농 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

산물 예방·퇴비로도 사용...마을별 '파쇄의 날' 운영

나주시가 수확기 이후 영농 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와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를 무상 임대한다.

영농 부산물 파쇄기는 농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볏짚, 고춧대, 콩·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을 잘게 부수는 기계다. <사진>

파쇄기 무상 임대는 관행적인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논·밭 화재를 예방하는 등 환경보호와 농가 편의를 위해 추진된다.

산물 예방뿐만 아니라 파쇄한 부산물은 퇴비로 사용,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마을별 '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해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을 비롯한 사업소 7곳에 '잔가지 파쇄 제조기', '자주식 목재 파쇄기', '트랙터 부착형 목재 파쇄기' 등 유형별 47대를 보유 중에 있다.

시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파쇄기 임대 신청을 통해 마을별 수요를 조사하고 28일부터 무상 임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파쇄기 무상 임대를 희망하는 마을은 이장, 주민 대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서 농작물 수확 후 잔가지, 콩대, 들깨대 등 사후 처리에 농업인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번 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 편의와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깨끗한 나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7개소 무료 셀프 세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눈에 띄는 지역 소식

장흥군, 원가심사로 예산 9억2000만원 아꼐다

올해 발주 사업 157건 심사

장흥군은 계약심사를 통해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심사는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장흥군은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 한 사업 157건에 대해 꼼꼼하게 원가심사에 나섰다.

그 결과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향상 및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및 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지역본부장 kykim@

장성 로컬푸드 광주 직매장 매출 30억 올렸다

첨단에 6월 개장 후

장성군은 광주 첨단지구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총매출이 3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28일 문을 연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사진)은 장성군이 100% 출원한 공익형 재단법인인 운영한다.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농가가 직접 진열 판매한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출하 농가 조직화 교육 등 장성군은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에 단기간 매출



30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꾸준히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기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물 절약이 가뭄을 극복합니다"

군 수원 저수율 최저 기록 제한급수 등 주민 불편 우려

담양군이 지속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담양시장과 중앙로 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펼치는 등 일상생활 물 절약 홍보에 나섰다. <사진>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담양군 상수원인 장성 평립댐과 자체 수원인 담양 신계제 저수율이 각각 예년 대비 50% 수준에 불과해 가뭄 지속 시 내년 2월부터는 정상적인 급수가 어려우며 최악의 경우 제한 급수로 전환될 수도 있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비상수원공급 적정수압 조정과 상수관로의 누수탐사, 보수공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수돗물 사용량 절약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생활 속 물 절약방법으로 ▲목욕 시 욕조 대신 샤워기 이용 ▲세수, 양치, 면도,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 ▲빨랫감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기 ▲변기수조에 물을 채운 플라스틱 병이나 벽돌을 넣어 두기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 점검 ▲허드렛물 재사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을 아껴 쓰기 위한 생활 속 실천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딸기 수경재배 매력에 '푹'

담양군, 신규농업인 교육 수료식

담양군이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교육 딸기 수경재배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예비귀농인 및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딸기 영농기술교육 및 안정적인 농촌 생활적응을 위한 농촌 정착교육으로 실시했다.

수료식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막연했던 영농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며 "실제 딸기재배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귀농인 및 신규 농



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강진군 '병영양조장' 경사 났네

'병영소주'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최우수상

병영양조장(대표 김건식)의 '병영소주'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군 병영면은 조선시대 지역 병권을 총괄했던 전라병영이 위치한 군사기지로 당시 병마절도사가 즐겨 마신 술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1호 김건식 명인이 '병영소주'를 빚고 있다.

병영소주는 쌀이 귀하던 시절 보리쌀로 빚어 마셨던 술이며 현재까지도 병영양조장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찰보리쌀과 누룩으로 밑술을 만들어 3주 이상 숙성시킨 뒤 빚어진 알콜 도수 40도의 보리 증류식 소주다.

이어 올해 남도 전통주 품평회 증류주부문 최우수상, 19년 벨기에 국제주류품평회 증류식 소주 부문 2-STAR 수상, 18년 국가지정 술 품질 인증 획득 등 전통주의 고급화와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술을 빚는데 사용되는 보리는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100% 국내산만 사용한다. 원재료에 들어가는 생산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재료만을 써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김 명인은 햅쌀과 누룩으로 담가 증류 후 복분자와 오디를 넣어 숙성한 '병영사도'와 한약



병영양조장 김건식대표의 딸 지유(오른쪽)씨가 회사를 대표해 상을 받고 있다.

재를 발효해 만든 약주인 '정세주', 유기농막걸리 '만월' 등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고 있다.

김 명인은 "오직 정직하고 깨끗하게 맛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양조장에 찾아와 시음도 하고 구경도 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청·장년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호응'

함평군이 지역 청·장년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함평군은 최근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청·장년, 주민, 공무원 등 27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읍·면별 청장년 워크숍을 통해 경영·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역 청·장년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강의는 '마케팅, 나도 한다!'라는 주제로 마케팅의 정의에서부터 성공사례, 마케팅 전략수립 방법 등에 대해 다뤄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분야별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